『불교연구』 제49집(2018), 103~131쪽

원효와 지눌의 돈점관

깨달음과 닦아감을 중심으로

김영일*

Ⅰ. 서언
Ⅱ. 수행론
　1. 원효의 수행론
　2. 지눌의 수행론
Ⅲ. 깨달음
　1. 원효의 돈점관
　2. 지눌의 돈점관
Ⅳ. 닦아감
　1. 원효의 돈점관
　2. 지눌의 돈점관
Ⅴ. 결어

www.kci.go.kr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강사. ykim1015@gmail.com

요약문

본고는 깨달음과 닦아감의 영역에서 원효와 지눌의 돈점관을 비교하고 있다. ‘Ⅱ. 수행론’에서는, 원효와 지눌의 수행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원효의 수행론은 대승불교의 52계위설을 매우 중시하고 그 설명이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눌의 수행론은 선교회통을 위해서 성립된 ‘돈오점수론’과 중국에서 수입한 간화선에 담긴 ‘돈오돈수론’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다.

‘Ⅲ. 깨달음’에서는, 깨달음[悟]의 측면에서 두 사상가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의 해설을 통해서 ‘돈오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돈오의 시점은 초지(初地)의 단계로 판단된다. 지눌도, 항상 ‘돈오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돈오의 시기에 대해서는, 돈오점수의 입장에서 ‘십신 초위’라고 하고, 돈오돈수의 입장에서 ‘묘각’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Ⅳ. 닦아감’에서는, 닦아감[修]의 측면에서 두 사상가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원효는 거의 모든 수행단계에서 전개되는 ‘점수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눌은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돈오점수의 입장에서는 수행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전개되는 ‘점수론’을 지지하고 있고, 돈오돈수의 입장에서는 묘각의 단계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돈수론’을 지지하고 있다.

주제어 :
원효, 지눌, 돈점관, 깨달음, 닦아감

www.kci.go.kr

Ⅰ. 서언

원효와 지눌은 한국불교를 대표할만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다. 원효(元曉, 617-686)가 활동한 시기는 한국불교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신라말기와 통일신라초기에 해당한다. 원효의 활동범위는 매우 광범위 하였는데, 학자들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겨놓았고, 수행자를 위해서는 수행의 모범을 보였으며, 일반 서민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화활동을 하였다.

지눌(知訥, 1158-1210)이 활동한 시기는 불교가 국교이던 고려시대이었다. 지눌은 승과에 합격하여 부귀영화를 목전에 두었지만,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불교중흥운동에 뛰어들었던 인물이다. 지눌은 불교수행과 관련된 여러 저서와 더불어 수행자를 위해서 진지한 수행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오늘날 한국불교의 중심인 조계종의 초석을 놓은 중천조(中闡祖)로서 그 위상이 높다.

이처럼 원효와 지눌이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 사상가의 업적을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1]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두 분의 활동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원효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대승불교사상에 폭넓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눌의 경우는 선불교와 관련된 선사상에 중점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성철에 의해서 촉발된 '돈점논쟁'은 논자가 본고의 주제를 구상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성철은 선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돈오돈수의 수행론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한국불교 수행론의 근간을 형성해온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비판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한국불교학계에서는 돈점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www.kci.go.kr

1) 이경원(2003); 박병기(2012); 김호성(2016).

당시 논쟁을 바라보면서, 논자는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원효의 수행론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국불교 수행론에서 지눌의 '돈오점수론'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성철의 '돈오돈수론'이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효의 수행론도 일정부분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효와 지눌의 수행론 내지 선사상 전체를 비교하는 것은 오늘날 남아있는 자료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깨달음[悟]과 닦아감[修]을 중심으로 하는 '돈점론'에 한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돈점론이란, 깨달음과 닦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단박[頓]에 성취하느냐 혹은 점차[漸]로 성취하느냐에 관한 불교수행론상의 논의를 말한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효의 경우는 『금강삼매경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2] 그리고 지눌의 경우는 『절요사기』,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수심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논의의 진행순서는 기존사상이 새로운 사상을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적인 선후관계에 따라 원효의 돈점론을 먼저 서술하고 지눌의 돈점론을 나중에 서술하였다.

2) 원효의 현존본은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20부 23권이다. 이들을, 이론, 수행,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금강삼매경론』, 『보살영락본업경소』, 『화엄경소』, 『범망경보살계본사기』, 『보살계본지범요기』 등 총5부 이다. 이 중에서, 원효의 돈점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저서는 『금강삼매경론』이 거의 유일하다. 『보살영락본업경소』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러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Ⅱ. 수행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원효와 지눌의 수행론을 '대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원효의 경우는 『금강삼매경론』「입실제품」에 기록된 이입(二入)과 이와 관련된 수행원리 내지 수행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3] 그리고 지눌의 경우에는 그가 평생 동안 이루고자 하였던 선교회통을 위한 '돈오점수론'과 말년에 수입한 간화선에 담긴 '돈오돈수론'을 중심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1. 원효의 수행론

한정된 자료를 감안해 볼 때, 원효의 수행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다만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해설하는 이론적인 틀을 '임시로' 원효의 수행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금강삼매경』을 살펴보면,[4] 부처님께서는 실제(實際)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입(二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그의 수행론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금강삼매경』「입실제품」에서 말하기를, 이입(理入)이란, 수행자가 이성을 통한 이지적인 활동으로 불성을 관찰하고, 또한 여러 방법으로 수행하여 무분별지에 이르도록 정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

3) 『금강삼매경』 안에는 여러 가지 수행에 관한 교설이 등장하는데, '원효의 돈점관'과 관련해서는 「입실제품」에 등장하는 내용이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원효의 수행론'으로 서술하고 있다.

4) 『금강삼매경』의 성립에 대해서, 水野弘元은 650년 이후에 등장한 僞經이라고 하였고, 석길암은 중국 삼계교에서 편찬하였다고 한다. 또한, 木村宣彰은 大安이나 元曉 주변인이라고 하고, 김영태는 大安, 惠空, 蛇福 등이라고 하며, Buswell은 신라의 法朗이라고 한다. 水野弘元(1955), 56-57; 석길암(2009), 79-127; 木村宣彰(1976); 김영태(1988), 11-37; Buswell(1989), 174.

그리고 행입(行入)이란, 수행자가 이지적인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살행으로 실천하는 교화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구하거나 어디에 집착함이 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5]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가 해설하기를, 이입(理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행자가 이치에 따라서 믿고 이해는 하였으나, 아직 증득하여 행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것을 수행계위로 표현하면 초지 이전이 된다고 한다. 또한, 행입(行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행자가 이치를 증득하여 수행하여 이미 무생행(無生行)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초지 이상의 수행계위에 해당한다고 한다.[6]

중요한 것은, 『금강삼매경』에서 말하는 이입과 행입에 대해서, 원효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단계인 52계위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입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에 해당하고, 행입은 십지, 등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7] 그리고 이러한 원효의 해석태도는 이어지는 존삼해탈, 수일심여, 입여래선과 같은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설명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원효는 존삼해탈(存三解脫)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수행자가 선정에서 닦은 마음을 선정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세상일을 마주 대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하여[存], 마침내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이라는 3가지 해탈[三解脫]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존삼해탈이 '십신'에서 시작하여 '십주'에서 완성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8]

또한, '수일심여(守一心如)'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있거나 선정에서 나오거나 할 것 없이 일심여(一心如)를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지키는 것[守]을 말하는데, 일심여란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법 중에서 심생멸문(心生滅門)이 아닌 심진여문(心

5) 『金剛三昧經』(T9, 369c).
6) 『金剛三昧經論』(H1, 641c-642a).
7) 『금강삼매경』에서는 6행을 설명하면서 수행의 결과인 묘각을 뺏는데, 이러한 태도에 맞추어서 행입에 십지와 등각만을 제시하였다.
8) 『金剛三昧經論』(H1, 646c).

眞如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수일심여라는 수행이 '십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설하고 있다.[9]

또한, '입여래선(入如來禪)'이란, 수행자가 무엇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분별심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 진제를 관조하더라도 중도라는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고, 선정 밖으로 나와서 속제를 관찰하여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얻거나 잃음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원효는 입여래선이 십회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10] 원효의 수행론을 표로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1] 원효의 수행론

이입(理入)				행입(行入)	
존삼		수일	입여래선	·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이상과 같은,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한 원효수행론의 특징을 든다면, 첫째, 원효는 '52계위설'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 52계위설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단계인데 원효는 수행을 설명하는 곳에서 자주 원용하고 있다. 둘째, 원효의 설명은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그의 설명은 마치 큰 그림 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준다.

9) 『金剛三昧經論』(H1, 645c).

10) 원효는 입여래선이 십회향에서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논자는 그렇게 이해한다. 왜냐하면, 첫째, 원효는 존삼과 수일에서처럼 '입여래선'에서 『본업경』의 십회향부분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강삼매경』에서, '초지[一不一地]에서 맑은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一不一地 淨心流入)'라고 한 것은, 입여래선 수행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에 '과위(果位)'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입여래선는 '초지'에서 완성이 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2. 지눌의 수행론

원효 이후에 중국에서는 선종역사상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초기 선종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고, 우두법융(牛頭法融, 594-657)의 우두종, 신수(神秀, 606?-706)의 북종, 혜능(慧能, 638-713)의 남종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남종에서 하택종과 홍주종이 갈라지게 되어 4종이 성립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번영한 종파는 5가 7종이 번성한 홍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불교계의 흐름을 크게 보면, 수·당대에는 이론중심의 천태종과 화엄종이 유행하였고, 분위기가 변하여 당말과 오대의 전란시대에는 수행위주의 선종 5가(家)가 활짝 꽃을 피웠다. 또한, 송대에 와서는 지식인들은 선종에 의지하였고 민중들은 정토종에 귀의하였는데, 남송대에 이르면 이제 중국의 선풍은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으로 나누어져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고려에서 지눌(知訥, 1158-1210)이 태어났다. 당시 고려불교는 내외적으로 갈등과 혼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11] 지눌은 어린 나이에 사굴산파에 입문함으로써 처음부터 선종의 일원으로서 불교를 접하였다. 그는 24세(1182)에 승선(僧選)에 합격하였지만, 세속의 출세를 버리고 청정한 수행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수행하는 동안 3번의 심기일전의 경험을 한다.[12]

이러한 지눌에게 일생을 두고 풀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시 사회에 만연한 선교갈등이었다. 지눌은 선교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28세(1185)되던 해에 이통현장자의 『화

11) 외부적으로는, 이자겸의 난(1126), 묘청의 난(1135), 무신의 난(1170)이 있어서, 왕실과 밀접한 고려불교의 기강은 극도로 해이해져 있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종과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간의 갈등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12) 첫째는 25세(1182)에 창평 청원사에서 『육조단경』을 읽던 중이었고, 둘째는 28세(1185)에 하가산 보문사에서 이통현장자의 『화엄론』을 읽던 중이었으며, 셋째는 41세(1198)에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정진하던 중 『대혜어록』을 보던 중이었다고 한다.

엄론』을 읽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13] 이 체험을 바탕으로 33세(1190)에 영천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주창하였으니, 당시 불교계의 분위기를 일신한 '결사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결사운동과 더불어, 지눌은 선교통합을 위한 '학문활동'도 함께 이어갔다. 즉, 『진심직설』에서는[14] 진심(眞心)을 말하는데 있어서 교종에서 말하는 이름들과 선종에서 말하는 이름들이 모두 진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5] 또한, 『절요사기(節要私記)』에서는,[16] 선종은 전간문(全揀門)에 가깝고 교종은 전수문(全收門)에 가까울 따름이어서 선교는 결국 하나라고 말하였다.[17]

또한, 『원돈성불론』에서는 '돈오점수'의 맥락에서 선교통합을 시도하는데, 수행자가 무명 속에서 분별하는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부동지(不動智)라는 것을 깨닫고[頓悟], 자신의 깨끗한 본성에 의거해서 선을 닦아가는 것[漸修]을 말하였다.[18] 이러한 지눌의 선교통합을 위한 노력은 마침내 중국 종밀의 '돈오점수론'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돈오점수론'을 성립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지눌은 41세(신종 원년, 1198)에 이르러 남송대에 간화선(看話禪)의 대가인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대혜어록』을 보던 순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지눌은 중국에서 새롭게 불어온 선풍인 간화선을 고려에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간화선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절요사기』와 『간화결의론』에 소상히 밝혀놓았다.[19]

---

13) "세존이 입으로 설한 것이 교(敎)요, 조사가 마음에 전한 것이 선(禪)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지눌은 옛 벗을 만난 것처럼 기뻤다고 한다.

14) 최연식(2002)이 『진심직설』의 저자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일단 지눌의 저서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15) 『眞心直說』(B, 50-51).

16) 이병욱(1999)은 지눌이 전간문과 전수문의 개념을 종밀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7) 『節要事記』(B, 150).

18) 『圓頓成佛論』(B, 69).

19) 간화선에는 핵심방법 중의 하나로 '무자화두'가 있는데, 원래 대혜가 8가지로 제시한 것을 지눌이 『절요사기』에서 주석의 형식으로 2개 항목을

www.kci.go.kr

이와 같은 간화선은 '불도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뜻으로 경절문(徑截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간화경절문을 통해서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문제가 비로소 제기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돈오돈수의 문제는 지눌이 말년에 받아들인 간화선에 담겨있는 돈오돈수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오돈수론이 그가 평생을 거쳐서 완성시킨 돈오점수론과 쉽게 융화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점에 대해서, 버스웰은 지눌사상의 핵심을 돈오점수론으로 보고, 지눌이 간화선을 받아들여 통일된 체계를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자랑거리가 퇴색되었다고 평가한다.[20] 그러나 논자는 지눌사상의 핵심을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종합론'으로 보고, 비록 통일된 체계를 세우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사상 속에 양론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21]

추가하고, 『간화결의론』(B, 96-97)에서는 10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 10가지 무자화두의 핵심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Buswell(1988)은 지눌이 『절요사기』에서는 간화선을 '돈오돈수'적인 수행법으로 다룰지를 주저하였다고 한다. 즉, 한편으로는 돈오점수론에 편입시키려고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특한 수행법으로 다루려 하였다고 한다. 이후, Buswell(1990)은 지눌이 『간화결의문』에서는 간화선을 돈오돈수적인 수행법으로 간주하였다고 한다. 즉, 간화선 수행방법 중에서, 참구(參句)는 돈오돈수와 연결되지만, 참의(參意)는 돈오점수와 연결됨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21) 논자는 소위 '돈점논쟁'과 관련하여, 성철의 견해를 돈오돈수를 앞에 내세운 '순수론'이라고 보고, 지눌의 견해를 돈오점수와 돈오돈수를 회통한 '종합론'이라고 본다. 본고는 성철에 의해서 촉발된 돈점논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Ⅲ. 깨달음

깨달음[悟]의 분야에 점오론(漸悟論)과 돈오론(頓悟論)이 있다. 먼저, 점오론에서는 수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깨달음의 지평이 점점 넓고 깊어져 마침내 궁극적인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여러 번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점오론은 『니까야』,[22] 『아함경』,[23] 『율장 대품』,[24] 등 인도 초기불교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도 대승불교에서도 대체로 유지된다.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자, 도교, 유교 등의 영향으로 돈오적인 사고방식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돈오론에서는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뿐인 이치[理]를 지혜로 비추어 얻게 되는 통일된 인식으로 우주를 파악한다고 하는데,[25] 깨달음의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에 관한 논쟁이 수차례 발생하는데,[26] 이 과정

---

22) MN. I , 479-480, “비구들이여, 나는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와 반대로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실천하는 점차적인 방식의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있다.(Nāhaṃbhikkhave ādiken′eva aññārādhanaṃvadāmi. Api ca bhikkave anupubbasikkhāanupubbakiriyāanupubbapaṭipadāaññ ārādhanāhoti.)”

23) 『長阿含經』(T1, 9a), “佛漸爲說法 示教利喜 施論 戒論 生天之論”.

24) 붓다는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의 가르침을 펼치는 도중에서 안냐따 꼰단냐(aññāta-Koṇḍaññа)가 깨달은 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인가한다. 그런 뒤 안냐따 꼰단냐는 붓다에게 구족계를 받으며 정식으로 출가하고, 한참 후에야 아라한의 경지를 인정받는다. 임승택(2012), 102-104.

25) 신회는 돈오에 11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김진무(2006)는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26) 남북조시대에는 혜관(慧觀)과 도생(道生)이 논쟁하였고, 선종초기에는 신수(神秀, ?-706)와 혜능(慧能, 638-713)이 논쟁하였으며, 8세기말 티베트에서는 카말라쉴라와 마하연이 논쟁하였다. 다만, 혜능과 신수가 벌인 소위 ‘남돈북점(南頓北漸)’에 대해서는 John R. McRae가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John R. McRae(1986), 274.

을 거치면서 중국에서는 대체로 돈오론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27]

1. 원효의 돈점관

깨달음에 관해서 원효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금강삼매경』「입실제품」에서 말하는 '이입(理入)'의 내용과 이점에 대한 원효의 해설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효가 이입(理入)을 위한 3가지 수행이 어느 수행단계에서 완성된다고 말하였는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입(二入)이란 첫째 이입(理入)을 말하고, 둘째 행입(行入)을 말한다. 이입이라고 한 것은, 중생은 진성(眞性)과 다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고 별개도 아니며, 다만 객진(客塵)이 가리는 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임을 깊이 믿고 각관(覺觀)에 머물러 불성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을 체관(諦觀)하여,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또 범부와 성자가 둘이 아님을 알고 금강심(金剛心)의 경지에 굳게 서서 옮기지 않고 적정무위(寂靜無爲)하여 분별이 없음을 '이입(理入)'이라고 이른다."[28]

이글은 원효가 매우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는 『금강삼매경』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입(理入)'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입이란, 중생의 진실한 성품은 객진번뇌로 가려져 있음을 믿고, 각관(覺觀)에 굳게 머무르며, 불성이 중도임

---

27) 중국교판의 완성형에 가까운 화엄교학의 교판론을 보면, 중관사상, 유식사상, 여래장사상은 점교(漸敎)에 머물지만, 선종과 화엄종은 돈교(頓敎)와 원교(圓敎)로서 그 위상이 높다.

28) 『金剛三昧經』(T9, 369c), "佛言 二入者 一謂理入 二謂行入 理入者 深信衆生不異眞性 不一不共 但以客塵之所翳障 不去不來 凝住覺觀 諦觀佛性 不有不無 無己無他 凡聖不二 金剛心地 堅住不移 寂靜無爲 無有分別 是名理入."

을 깊이 관찰하고, 금강심의 경지에 머물러 적정무위(寂靜無爲)하여 분별이 없는 상태에 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한편, 선서(禪書)라고 하는 점에서 『금강삼매경』과 같은 종류의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속고승전』「보리달마장」에도 '이입(理入)'이 등장한다.[29] 거기에 보면, 위 인용문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각관(覺觀) 대신에 벽관(壁觀)을 든 점과, 적정무위(寂靜無爲) 대신에 적연무위(寂然無爲)를 드는 점 등을 들 수 있다.[30]

중요한 것은, 『금강삼매경』과 『속고승전』에서 공통적으로 '이치[理]'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불교사상사에서 돈오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축도생(竺道生, 372-434)'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돈(頓)이란 '이치[理]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오(悟)란 '(지혜로) 지극하게 비춘다'는 것을 말한다. 불이(不二)의 깨달음으로 나눌 수 없는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치와 지혜가 함께 어울러지는 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고[31] 하였던 것이다.

논자는 '이치[理]는 나누어질 수 없기에 문득[頓] 깨닫는다'라는 사고방식은, 이와 같은 '돈오(頓悟)'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원효가 이(理)와 이입(理入)을 논하고 있는 『금강삼매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그가 돈오론(頓悟論)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오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일까? 원효는 『금강삼

29) 달마선의 이입사행론과 『금강삼매경』의 이입행입설의 선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水野弘元(1955)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이 먼저라고 하고, 柳田聖山(1993)은 『금강삼매경』의 이입행입설이 먼저라고 한다.

30) 『續高僧傳』(T50, 551c), "然則 入道多途 要唯二種 謂理行也 藉教悟宗 深信含生同一眞性 客塵障故 令捨僞歸眞 疑住壁觀 無自無他 凡聖等一 堅住不移 不隨他教 與道冥符寂然無爲 名理入也."

31) 『肇論疏』(X54, 20), "夫秤頓者 明理不可分 悟語照極 以不二之悟 苻不分之理 理智惠釋謂之頓悟"

매경론』에서, 수행자는 '이입(理入)'의 단계에서 3가지 수행을 한다고 말한다. 십신에서 십주까지는 제1존삼해탈(存三解脫) 수행, 십행에서는 제2수일심여(守一心如) 수행, 십회향에서는 제3입여래선(入如來禪) 수행을 한다. 이 중에서 '입여래선'의 체(體)라고 할 수 있는 '이관삼매(理觀三昧)'에 대해서 해설하는 부분을 본다.

> ① 대력보살이 아뢰기를, "… 이치로 관찰하는 삼매란 무슨 법으로 들어갑니까?"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이치로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치와 같이 맑아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32]
>
> ② 이관(理觀) 가운데, '마음이 진여와 같이 맑아서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진여의 무상(無相)을 따라서 마음에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33]

①은 『금강삼매경』에서 말한 것이고, ②는 『금강삼매경론』에서 해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관삼매의 상태는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신다. 원효는 이에 대해서, '진리[眞如]는 형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분별심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이 없다[無可不心]'고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마음에 분별심이 없게 된다'라는 말은, 앞의 『금강삼매경』에서 이입(理入)을 설명하는 도중에, '적정무위하여 분별이 없다'는 말과, 『속고승전』「보리달마장」에서 이입(理入)을 설명하는 도중에 '도와 은밀히 부합하여 적연무위하다'라는 말과 서로 부합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효는 입여래선 수행이 완성되는 '초지(初地)에서 돈오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깨달음'과 관련해서 원효가 생각하는 돈점관에 대해서 살

---

32) 『金剛三昧經』(T9, 370a-b), "大力菩薩言 … 理觀三昧 從何法入 佛言 … 理觀心者 心如理淨 無可不心."

33) 『金剛三昧經論』(H1, 646b), "理觀中言 心如理淨無可不心者 順理無相 心無分別故."

펴보았다. 원효는 돈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理)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금강삼매경』을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돈오론(頓悟論)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그 시점으로는 이입(理入)의 3가지 수행이 완성되는 '초지(初地)'에서 돈오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지눌의 돈점관

깨달음에 관해서 지눌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서 지눌이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이라고 하는, 언 듯 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2가지 입장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깨달음에 관한 지눌의 돈점관을 알아보는데 있어서도, 그의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먼저, 돈오점수의 입장에서 그가 가진 견해를 살펴보자.

> ① 범부가 미혹할 때에는, 사대(四大)로 몸을 삼고 망상으로 마음을 삼는다. 그리하여 자기의 성품이 진정한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신령한 앎이 진정한 부처인 줄 모른다. 그러다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본성을 보고, 자기 마음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돈오(頓悟)'이다.[34]
>
> ② 이 일승원돈문을 의지하는 자는 십신의 마음을 내는 처음에 근본지의 과해를 얻는 것이며, 십천겁을 지내도록 닦은 다음에야 십신의 신심이 만족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 여기에서 말한 깨달음은 닦은 뒤에 깨달은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해오(解悟)'이다. 비록 이해하여 얻은 '깨달음'이지만 문득 발현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과위상의 성품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일승의 불과는 그 법이 십신의 초

34) 『修心訣』(B, 34), "答頓悟者, 凡夫迷時, 四大爲身, 妄想爲心, 不知自性是眞法身; 不知自己靈知是眞佛; 心外覓佛,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一念廻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元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卽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悟也."

지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지만, 미래의 결과를 포함했다는 말은 아니다.[35]

이글에서, 지눌은 '돈오점수에서 말하는 돈오의 의미'와 '돈오가 이루어지는 수행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①에서, 보통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성품이 바로 진리의 참모습이고 자신이 진정한 부처인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선지식의 가르침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 이것을 바로 '돈오(頓悟)'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②에서, 지눌은 돈오점수에서 말하는 돈오가 이루어진 수행단계와 그 성격을 말하고 있다. 즉, 돈오는 믿음의 마음을 처음으로 내는 십신(十信)의 초위(初位)에서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돈오점수에서 말하는 돈오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데, 십신 초위에서 이루어지는 돈오는 이해를 통한 깨달음인 까닭에 증오가 아니라 '해오(解悟)'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 '돈오돈수'의 입장에서 가진 지눌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지눌은 『절요사기』에서 '돈오'와 '돈수'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이 이미 명확하다고 생각하여서 인지,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자는 선종 안에서 지눌과 같이 선교일치를 주장하였던 법안종의 3조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의 글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36]

---

35) 『圓頓成佛論』(B, 84-88), "是知此一乘 圓頓門假者 十信心初得 根本智果海非由十千劫歷修然後 至十信滿心明矣 … 此中所論悟者 非先修而後悟故 是解悟也 雖是解悟 以頓發悟處故 卽不說果 分性海同也 又以一乘佛果 法爾在十信初心 非當果融攝之論也."

36) 지눌의 선사상은 혜능, 종밀, 이통현, 종고뿐만 아니라, '연수'로부터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 『절요사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절요사기』에서는 연수의 돈점론에 찬동하는 지눌의 언급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연수의 돈점론이 지눌의 돈점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방룡(2017), 388-389 참고.

> '돈오(頓悟)'는 이 생애를 여의지 않고 해탈을 얻으니, 사자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진짜 사자로 되는 것과 같아서, 닦을 때 즉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것은 마치 봄에 대나무에서 죽순이 나오면 봄을 여의지 않고 곧 어미 대나무와 가지런하게 자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마음은 공(空)한 것이어서 만약 망념을 없애면 영원히 나와 남을 끊어 없애게 되니, 부처와 더불어 나란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37]

여기에서, 우리는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오의 의미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이글에서 연수는 돈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즉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또는 '부처와 더불어 나란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오의 의미는 '단박에 얻는 깨달음'을 말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오'의 의미는 '돈오점수에서 말하는 돈오'의 의미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 보인다. 즉,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오'는 수행을 수반하는 개념이고, '돈오점수에서 말하는 돈오'는 먼저 깨닫고 나서 후에 닦아 나아가는 '선오후수(先悟後修)에서 말하는 돈오'라는 차이가 있지만, 양자가 '단박에 깨닫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오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돈오점수에서 말하는 돈오와 같다고 하여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위 인용문에서 '부처의 지위'를 자주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오는 '묘각의 지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추정해야 온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깨달음[悟]'과 관련해서 지눌이 생각하는 돈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눌은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어느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항상 '돈오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다. 돈오점수

---

37) 『宗鏡錄』(T48, 627b), "頓悟者 不離此生 卽得解脫 如師子兒 初生之時 是眞師子 卽修之時 卽入佛位 如竹春生筍 不離於春 卽與母齊 何以故 心空故 若除妄念 永絶我人 卽與佛齊."

에서는 경전의 가르침을 처음들은 '십신 초위'이지만, 돈오돈수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묘각의 지위'로 추정된다.

생각건대, 원효와 지눌이 말한 '십신', '초지', '묘각'은 비록 수행의 단계는 다르지만, '하나뿐인 이치[理]를 지혜로 비추어서 얻게 되는 통일된 인식'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하면, 마치 학생이 처음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안 것[십신]과, 학생이 문득 깨우쳐서 안 것[초지]과, 학생이 마침내 선생님이 되어서 안 것[묘각]이 '실제로 같은 내용이다'고 하는 것과 같다.

Ⅳ. 닦아감

깨달음의 분야와 별도로, 닦아감[修]의 분야에도 점수론(漸修論)과 돈수론(頓修論)이 있다. 먼저, '점수론'이란 수행을 한 걸음씩 진전해 나아간다는 것인데, 수행에 여러 단계를 설정하는 특징이 있다. 인도 초기불교에서 수행의 단계는 지극히 멀고 험난한 과정을 담고 있으며,[38] 인도 대승불교에 이르면 좀 더 단순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행의 과정은 장구하다고 할 수 있다.[39]

또한, '돈수론'이란 수행을 단번에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수행단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돈(頓)'적인 사고방식이 침투하게 되는데, 수차례의 돈점논쟁을 통해서 돈오론이 대세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닦아감'의 분야에도 미치게 되어, 중국 선종에서는 마침내 '돈수론'이 대세를 차지하게 된다.

---

38) 예컨대, 부파불교를 대표하는 설일체유부에서는, 7방편도, 견도, 수도, 무학도의 욕계(欲界)를 지나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를 지나야 한다.

39) 예컨대, 대승불교를 대표할 만한 『화엄경』과 『본업경』에서는 52개의 수행단계를 지나야 한다.

1. 원효의 돈점관

'닦아감'에 있어서 원효의 견해는 어떠한가? 『금강삼매경』「입실제품」과 「진성공품」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만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입실제품」에는 '이입(理入), 행입(行入) 등 이입(二入)'의 논의에 대한 원효의 해설이 있고, 『금강삼매경론』「진성공품」에는 '신위(信位), 사위(思位) 등 5위(五位)'의 논의에 대한 원효의 해설이 있다.

① 이 중에서 '이입(理入)'이라는 것은 이치에 따라서 신해(信解)하지만 아직 증행(證行)을 체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입이라고 하며, 그 지위는 십지 이전에 있다. '행입(行入)'이라는 것은 이치를 증득하고 수행을 닦아서 무생행(無生行)에 들어가기에 행입이라고 하며, 그 지위는 지상(地上)에 있다.

② 이입(理入)에 관한 글 중에 네 구절이 있는데 '심신(深信) 이하에서 예장(翳障)까지'는 '십신'에 들어감을 말한다. … 둘째 구절인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각관에 머물러'이란 '십주'에 들어감을 말한다. … 셋째 구절인 '불성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을 체관하여'란 '십행'에 들어감을 말한다. … 넷째 구절인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또 범부와 성자가 둘이 아니다'고 한 것은 '십회향위'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입(理入)하고 나서 자타에 평등한 공을 얻었으므로 마음이 금강과 같이 굳게 머물러 물러서지 않는다. … '행입'이란 '지상증입(地上證入)의 행'을 말한다. '마음이 어디에도 기울거나 의지하지 않음'이란 여리지(如理智)는 마음이 반연하지 않으므로 이렇듯 반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다.[40]

---

40) 『金剛三昧經論』(H1, 641c-642a), "此中理入者 順理信解 未得證行 故名理入 位在地前 行入者 證理修行 入無生行 故名行入 位在地上 理入文中 有其四句 深信已下 乃至翳障 是十信入 不一者 謂衆生相 不異眞性 而非一故 不共者 非亦一亦異故 第二句言 不去不來凝住覺觀者 是十住入 悟衆生空故不來去 於人空門 靜住其心 覺察佛性 無去來故 第三句言 諦觀佛性不有不無者 是十行入 已得法空 依法空門 諦觀佛性 不有法相 不無空性故 第四句言 無己無他凡聖不二等者 是明十廻向位 理入 已得自他平等空故 心如金剛 堅住不退 … 是明地上證入之行 心不傾倚者 如理智心 不攀緣故 攀緣之心不生起故."

이글은 『금강삼매경』 「입실제품」에 등장한 이입(二入)의 의미를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가 풀이해 주고, 그것들을 대승의 52계위와 연결하여 해설해주는 장면이다. ①에서는 원효기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의 대체적인 뜻을 밝힌 뒤에, 이입(理入)은 52계위 중에서 십지 이전인 십회향까지가 해당하고, 행입(行入)은 십지 이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각각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②에서는, 이입(二入)과 관련하여 등장한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것들을 52계위와 연결하여 해설하고 있다. 즉, '깊게 믿어'는 십신위에, '각관에 응주하여'는 십주위에, '불성을 체관하라'는 십행위에, '범부와 성자가 둘이 아니다'는 십회향위에 각각 대응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한 행입(行入)은 '지상증입의 행[地上證入之行]'에 대응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행입이 십지와 등각에 대응한다는 점이 불명확한데, 이점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처님께서 '육행(六行)'이란 십신행, 십주행, 십행행, 십회향행, 십지행, 등각행을 말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41] 원효는 이입(理入)은 앞의 4위(四位)에 해당하고, 행입(行入)은 뒤의 2위(二位)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하였던 것이다.[42]

> ① 사리불이 아뢰었다. "모든 중생이 일천제(一闡提)를 따르니, 천제의 마음은 어떠한 등위(等位)에 머무르고, 여래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여래의 실상을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제의 마음으로부터 여래에까지 이르나니, 여래의 실상은 5등위(五等位)에 머무느니라. …"[43]

---

41) 『金剛三昧經論』(H1, 644c), "大力菩薩言 云何六行 願爲說之 佛言 一者十信行 二者十住行 三者十行行 四者十廻向行 五者十地行 六者等覺行 如是行者乃能知之."

42) 『金剛三昧經論』(H1, 644c-645a), "此六行中 前四位是理入階降 後二位者 行入差別 於中略義 在本業經 廣分別義 出華嚴敎."

43) 『金剛三昧經』(T9, 371a), "一切衆生 從一闡提 闡提之心 住何等位 得至如來如來實相 佛言 從闡提心 乃至如來如來實相 住五等位."

② 첫째는 신위(信位)이니 십신행(十信行)에 있다. 아직 불퇴전(不退傳)은 아니라 할지라도 큰 마음을 일으켰으므로 그러한 것이다. … 둘째는 사위(思位)이니 삼십심(三十心)에 있다. … 셋째는 수위(修位)인데, 십지행(十地行)에 있다. … 넷째는 행위(行位)인데 등각행(等覺行)에 있다. … 다섯째는 사위(捨位)이며 묘각지(妙覺地)에 있다. 적멸을 취하지 않고 대비로써 널리 교화하는 까닭이다.[44]

이글은 『금강삼매경』「진성공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위에 대해서,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그것을 대승의 52계위와 연결하여 해설하는 장면이다. ①에서는 사리불이 일천제에서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정 내지 수행단계에 대해서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신위(信位), 사위(思位), 수위(修位), 행위(行位), 사위(捨位)의 5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이다.

②에서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가 여기에 등장하는 5위를 대승의 52계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제1신위는 십신에, 제2사위는 십주부터 십회향에, 제3수위는 십지에, 제4행위는 등각에, 제5사위는 묘각에 각각 해당된다고 한다. 이처럼 원효는 「진성공품」에 나오는 5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52계위설과 연결하여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 『금강삼매경론』에 있는 원효의 해설을 살펴보았다. 『금강삼매경』에는 이입(理入), 행입(行入) 등과 같은 '2입'도 있고, 신위, 사위 등과 같는 '5위'도 있는데, 원효는 이들을 모두 52계위론으로 해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원효가 닦아감에서 '점수론'을 지지하고 있고, 수행은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44) 『金剛三昧經論』(H1, 654b), "第一信位 在十信行 雖未不退 發大心故 本業經名信相菩薩 第二思位 在三十心 思量諸法 唯識道理 齊未眞證無分別修故 第三修位者 在十地行 得眞證修 對治十障故 第四行位者 在等覺行 因行已滿 未至果地故 第五捨位者 在妙覺地 不取寂滅 大悲普化故."

2. 지눌의 돈점관

닦아감에 관해서 지눌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오점수의 입장과 돈오돈수의 입장에서 각각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돈오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심결』과 『원돈성불론』에서 관련된 문장을 찾을 수 있고, 돈오돈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인용하였던 연수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45]

> ①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시작도 없는 아득한 습기를 갑자기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해 닦아서 점차로 훈습하여 공(功)이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신성한 태(胎)를 기르고 길러서 오랜 세월이 지나 성인(聖人)이 완성되나니, 이것을 일러 '점수(漸修)'라고 한다.[46]
>
> ② 이 사람은 자기 무명의 마음이 그대로 본래 신묘하고 본래 진실되어서 공력을 들이지 않는 크나큰 용(用)이 항상 이어지고 있는 이치를 깨닫는다. 그리하여, 십신의 경지 중에서 방편으로 지관을 닦아서 번뇌에 대처할 수 있는 공력을 이루어서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지니, 이것을 '발심주(發心住)'라고 한다. … 그러나 초발심으로부터 때 없는 지혜[無時智]의 문에 드는 것이므로 비록 '구경위'에 이르지만 처음부터 옮기고 바뀐 일이 없는 것이, 마치 왕의 보배도장을 한번 찍으면 문채가 이루어져 앞뒤가 없음과 같다.[47]

여기에서, 지눌은 돈오점수론에서 말하는 '점수(漸修)'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①에서, 지눌은 '점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45) 논자는 지눌의 저서에서 이점에 관한 명쾌한 언급을 찾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위에서 인용하였던 영명연수(永明延壽)의 글을 다시 인용한다.

46) 『修心訣』(B, 34), "漸修者, 雖悟本性 與佛無殊, 無始習氣, 難卒頓除故, 依悟而修, 漸熏功成, 長養聖胎, 久久成聖故, 云漸修也."

47) 『圓頓成佛論』(B, 84-85), "以悟自無明 本神本眞 無功大用 恒然之法故, 自修十信中 方便止觀, 任運功成, 定慧圓明, 便名發心住 … 然從初發心 以入無時智門故 雖至究竟位 初無移易也 如王寶印 一印文成 無前後也."

보통사람들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부처님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돈오'라고 하는데, 그러한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차 닦아나가 그 공(功)이 바야흐로 이루어지는 것을 '점수'라고 한다는 것이다.

②에서는, '점수가 이루어지는 수행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52계위에 의하면 십신 이후에 십주가 등장하는데, 지눌은 십주의 초위인 발심주(發心住)를 거명하고 있고, 52계위의 마지막인 묘각을 구경위(究竟位)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비록 52계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수행단계에서 점수가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 '돈오(頓悟)'는 이 생애를 여의지 않고 해탈을 얻으니, 사자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진짜 사자로 되는 것과 같아서, 닦을 때 즉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것은 마치 봄에 대나무에서 죽순이 나오면 봄을 여의지 않고 곧 어미 대나무와 가지런하게 자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마음은 공(空)한 것이어서 만약 망념을 없애면 영원히 나와 남을 끊어 없애게 되니, 부처와 더불어 나란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48]

여기에서, 우리는 '돈오돈수론에서 말하는 돈수(頓修)'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2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사자새끼가 곧 진짜 사자와 같고, 봄에 피어난 대나무 죽순이 곧 어미 대나무와 같다고 한다. 이로써 짐작컨대,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수의 의미'란, 더 이상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단번에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수가 이루어지는 수행시기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돈오'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묘각의 단계로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서 '부처의 지위' 혹은 '부처와 더불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48) 『宗鏡錄』(T48, 627b), "頓悟者 不離此生 卽得解脫 如師子兒 初生之時 是眞師子 卽修之時 卽入佛位 如竹春生筍 不離於春 卽與母齊 何以故 心空故 若除妄念 永絶我人 卽與佛齊."

있다. 이들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돈수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마땅히 '묘각'의 단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닦아감에 대한 지눌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는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달랐다. 즉, 돈오점수의 입장에서는 '점수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는 '십신에서 묘각에 이르는 모든 수행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돈오돈수의 입장에서는 '돈수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는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묘각의 단계'로 추정되었다.

V. 결어

지금까지, 깨달음과 닦아감의 영역에서 원효와 지눌의 돈점관을 비교해 보았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원효와 지눌의 수행론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원효는 수행을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내용상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단계인 52계위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눌은 돈오점수와 돈오돈수라는 언 듯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2가지 선사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돈오점수'는 선종과 교종이 갈등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선교통합을 위해서 평생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었으며, '돈오돈수'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간화선을 고려에 수입한 결과의 산물이었다. 지눌은 만년에 양 수행체계를 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다음, 깨달음[悟]의 측면에서 두 사상가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원효의 경우에는, 이입(理入)을 말하고 있는 『금강삼매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그가 '돈오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돈오가 이루어진

www.kci.go.kr

시점에 대해서는, '입여래선'이라는 수행이 완성되는 10회향 이후 초지(初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눌의 경우에는, 돈오점수나 돈오돈수의 입장과 관계없이 항상 '돈오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돈오의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돈오점수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경전의 가르침을 처음들은 '십신 초위'에 돈오가 일어난다고 하고, 돈오돈수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진리를 체득한 '묘각'에서 돈오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닦아감[修]의 측면에서 두 사상가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원효의 경우에는, 『금강삼매경』에 등장하는 이입(理入), 행입(行入), 등과 같은 '2입'과 신위(信位), 사위(思位), 등과 같은 '5위'에 대해서 모두 52계위로 해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볼 때, 그가 '점수론'을 지지하고 있고, 그 수행은 모든 수행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진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눌의 경우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다. 즉, 돈오점수의 입장에서는 '점수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돈오돈수의 입장에서는 '돈수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닦아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돈오점수의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돈오돈수의 입장에서는 '묘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www.kci.go.kr

약호 및 참고문헌

B: 普照全書
H: 韓國佛敎全書
T: 大正新脩大藏經
X: 卍新纂續藏經, 中華電子佛典協會 (CBETA)
MN: Majjhima-nikāya, PTS.
『眞心直說』(B)
『法執別行錄節要並入事記』(B)
『圓頓成佛論』(B)
『看話決疑論』(B)
『修心訣』(B)
『金剛三昧經論』(H1)
『長阿含經』(T1)
『金剛三昧經』(T9)
『宗鏡錄』(T48)
『續高僧傳』(T50)
『肇論疏』(X150)

김방룡(2017), 「지눌의 선사상에 끼친 영명 연수의 영향」, 『보조사상』47, 보조사상연구원.
김영태(1988),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 『불교학보』25,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2006), 「선종에 있어서 돈오의 수용과 그 전개」, 『선학』15, 한국선학회.
김호성(2016), 「원효의 미타증성게와 보조지눌」, 『불교학연구』49, 불교학연구회.
박병기(2012), 「한국불교에서 삶의 의미 문제와 인권(人權) - 원효와 지눌의 깨달음[覺]개념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27, 한국윤리교육학회.
박태원(2012), 「돈점논쟁의 쟁점과 과제」, 『불교학연구』32,

www.kci.go.kr

불교학연구회.
박태원(2014),「원효의 '금강삼매경' 6품 해석학」,『철학논총』77, 대구: 새한철학회.
백옥수(2002),「종밀 돈오점수론의 성립과 성격」,『한국불교학』32, 한국불교학회.
이경원(2003),「元曉와 知訥의 心體論 比較 硏究」,『양명학』9, 한국양명학회.
이병욱(1999),「종밀과 보조의 선교관 비교」,『보조사상』12, 보조사상연구원.
임승택(2012),「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돈과 점」,『불교학연구』32, 불교학연구회.
조윤호(1998),「종밀 돈오점수 성불론 체계의 형성과 의의」,『한국불교학』24, 한국불교학회.
최연식(2002),「『眞心直說』의 著者에 대한 새로운 이해」,『진단학보』94, 진단학회.
木村宣彰(1976),「金剛三昧經の眞僞問題」,『仏教史學硏究』18卷2号.
柳田聖山(1993),「金剛三昧經の硏究」,『백련불교논집』제3집.
水野弘元(1955),「菩提達磨の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印佛硏』제3권 2호.
McRae, John R.(1986), The Northern School and the Formation of Early Ch'an Buddhism. Honolulu.
Buswell, Robert(1988),「돈오돈수에 대한 지눌의 兩價的 비판」,『보조사상』2, 보조사상연구원.
Buswell, Robert(1989),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Apocryph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Buswell, Robert(1990),「간화선에 대한 지눌의 양자택일적 관점과 돈오돈수와의 관련성」,『보조사상』4, 보조사상연구원.

www.kci.go.kr

Abstract

The Study on the Sudden/Gradual View of Wonhyo and Chinul

Kim, Yeong Il
Dongguk Univ.

This paper deals with the sudden/gradual view of Wonhyo and Chinul at the aspect of enlightenment and cultivation. First of all, Wonhyo's thoughts of Seon is very delicate and systematic based on the system of 52 steps in Mahayana Buddhism. And Chinul's thoughts of Seon has two theories at the same time: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and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sudden cultivation.

At the aspect of enlightenment, Wonhyo has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the enlightenment occurs at the first step of ten stage (bhūmi). Chinul also has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t the aspect of enlightenment but has two different steps of enlightenment: the first step of ten faith in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and the ultimate step in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sudden cultivation.

At the aspect of cultivation, Wonhyo has the theory of gradual cultivation and the cultivation takes place at every steps in the 52 steps. In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however, Chinul has the theory of gradual cultivation and the practitioner cultivates at every steps. And in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sudden cultivation, Chinul has the theory of sudden

www.kci.go.kr

cultivation and the practitioner finishes the cultivation at the ultimate step.

Key Words :
Wonhyo, Chinul, the sudden/gradual view, enlightenment, cultivation

www.kci.go.kr

투고일 2018. 07. 25 | 심사기간 2018. 07. 25 - 08. 13 | 게재확정 2018. 08. 14